
철도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경전선 고속열차(KTX · SRT) 증편 건의

2026. 04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철도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경전선 고속열차(KTX·SRT) 증편 건의

I. 현황 및 문제점

- 경전선 고속열차(KTX·SRT)는 수도권과 경남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2010년 KTX 개통 이후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해 왔음. 특히 2023년 SRT 운행 개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추후 경전선에 대한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KTX·SRT 이용객 : 19년 662만 명 $\Rightarrow$ 25년 966만 명, 연 평균 51만 명씩 증가

- 그러나 열차 공급은 증가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운행 횟수와 좌석 수에 비해 이용 수요가 높아 25년 기준 경전선 이용률은 KTX 126%, SRT 160%로 전국 고속열차 노선 중 가장 혼잡도가 높은 수준임. 이로 인해 열차표의 예매 경쟁이 치열하며, 특히 주말·공휴일에는 좌석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 운행횟수 : 경부선의 1/5 경전선 40회 / 경부선 : 216회

좌 석 수 : 경부선의 1/7 경전선 : 22,196석 / 경부선 : 159,779석

- 현재 경남은 인구 333만 명, GRDP 151조 원으로 전국 3위, 행정구역은 전국 4위 규모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 최고 수준의 경제적 위상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위·우주항공 등 국가 핵심 전략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특히 창원국가산단을 비롯해 굴지의 산업단지 208개(1위)가 입지한 경남은 지역 기업 임직원들의 수도권 주요 연구기관, 협력 업체 등과의 업무 협력을 위한 출장 등 고속철도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철도 인프라는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8개도와의 모든 비교 지표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음

* 인구당 노선연장 : 88.3km/백만 명 (8위), 인구당 역수 : 8.3개/백만 명 (8위), 면적당 노선연장 : 0.0272km/km² (8위), GRDP당 노선연장 : 1.9km/조 원 (8위), 산업단지당 노선연장 : 1.4km/개 (8위)

- 이로 인해 도민의 이동권이 제약되는 등 온전한 철도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물론, 산업·물류·관광 측면에서도 구조적 불이익이 지속되는 등 철도 소외지역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고속철도 운영은 경부·호남고속선에 편중되어 있어, 경전선은 배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음. 이로 인해 경남지역의 열차 공급 부족은 지속되고 있음.
-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 공급확대 계획에는 26년 9월까지 이원화된 KTX-SRT 고속철도의 통합 운영으로 1일 약 1.6만 석의 좌석 공급 확대가 예정되어 있음.
- 또한 26년 말부터 신규 고속열차 31편성이 순차 도입되어 약 5만 5천석(1일)의 공급 확대되며, 28년에는 평택-오송 2복선화가 완공되어 선로용량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병목현상 해소 및 추가 운행 여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경남 도민의 만성적 좌석난 해소와 수도권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한 온전한 철도서비스를 위해 경전선 고속철도의 운행 횟수와 좌석 공급이 실질적으로 증가되어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는 물론 지역간 교류를 확대를 통한 국가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Ⅱ. 건의

- 이에 경남도민의 철도서비스 향상과 수도권과의 교류 활성화,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고속철도 운영체계 개편 및 신규 열차 도입 계획과 연계하여 아래의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건의함
- KTX·SRT 통합 운영 시, 운행계획 시 우선 적용 가능한 증편·증차 및 공급조정을 즉시 반영
 - 장기적으로 운영 여력과 좌석 공급 확대시, 경전선을 최우선 고려 노선으로 반영

2026년 4월 20일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최 재 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최 재 호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허 성 두
통영상공회의소 회장 홍 재 식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황 태 부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박 창 현	김해상공회의소 회장 노 은 식
밀양상공회의소 회장 주 보 원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박 종 희
거제상공회의소 회장 김 점 수	